

시편 1권의 문맥에서 본 시편 9-10편의 “아나브”(אָנאַב)의 의미

김창대*

1. 들어가는 글

시편에서 종종 “은유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אָנאַב,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뜻)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표현하는 명칭이다(10:12; 25:9; 37:11; 69:32; 76:9).¹⁾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종종 “가난한 자”(9:12, 18), “겸손한 자”(10:17; 22:26; 147:6; 149:4), 또는 “곤고한 자”(34:2)로 번역하고 있다. 시편에서 이 단어와 같은 의미군에 속한 단어들로 “아니”(אֵינִי, 가난한 자라는 뜻), “달”(לַיָּרֵךְ, 연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라는 뜻), “에브온”(עֵבֹן, 궁핍한 자라는 뜻) 등이 등장한다(9:18; 41:1; 70:5).²⁾

시편에서 “아나브”의 의미는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고난당하여 낮아지고 가난해 진 자를 뜻하는 “아나브”는

* 안양대학교 부교수, 구약학

1) W. J. Dumbrell, “אָנַב,”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7), 458-459.

2) Hans ~ Joachim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A Continental Commentary*, Keith Crim,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2), 150. 여기서 Kraus는 “아나브”와 같은 의미군에 속하는 단어로 אָנַבְיָרֵךְ를 포함시킨다(10:8, 10, 14).

시편 9-10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데, 이 가난함의 주제는 이후 시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³⁾ 시편은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의 탄식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자를 “아나브”로 표현하고, 그를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으로 투영시킨다.⁴⁾ 따라서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를 아는 것은 시편 전체의 숲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은유한 자로 번역된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와 뉘앙스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될 수 없다.⁵⁾ 예를 들어,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자로 동일시되는 “아나브”가 중요한 키워드로 기능하는데(37:11),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⁶⁾ 그런데 시편의 경우 그 문맥의 경계가 한 시에 한정되지 않고 주위 시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전제 속에서 시편을 연구하는 방법을 구성적 방법이라고 말한다.⁷⁾ 시편 37편의 “아나브”라는 단어는 주위의 시들인 시편

3) Patrick D.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91.

4) 실제로 시편 37편에서 “아나브”는 “의인”과 같은 반열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37편에서 등장하는 “아나브”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9절), “온전한 자”(18절), “주의 복을 받는 자”(22절), 그리고 “의인”(29절)으로 묘사되고 있다. Changdae Kim, “The Blessing of Inheriting the Earth in Psalm 37: Its Theolog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1 (2007), 98.

5) “아나브”는 “아니”와 함께 동사 아니(אני)에서 왔다고 추정된다. “아니”라는 뜻은 “괴롭히다”, “낮추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 동사는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괴롭혀서 낮추고 제어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레위기 16:29). “아나브”의 어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정우,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聖經과神學』 8 (1990), 62-89.

6) Peter Cotterell, “Linguistics, Meaning, Semantics, and Discourse Analysis,” Willem A. VanGemeren, ed.,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9), 141.

7) 시편 연구의 구성적 방법은 1980년대를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많은 호응을 받는 추세다. Gerald H.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34편과 25편에서 등장한다. 그리하여 근접 문맥인 시편 34-37편과 원접 문맥인 25-37편의 문맥에서 37편의 “아나브”의 의미가 고찰될 수 있다.⁸⁾

본 연구는 이런 구성적 방법과 수사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시편의 시들이 주위 시들과 긴밀한 문맥을 이루고 있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위 시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시편 9-10편에 처음 등장하는 “아나브”의 의미를 살필 것이다(9:12, 18; 10:12, 17).⁹⁾ 이를 위해 먼저 시편 9-10편이 시편 3-14편의 문맥 안에 있음을 밝히고, 3-14편의 문맥에서 “아나브”가 함의하는 신학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편 1권에서 “아나브”의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는 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위 문맥인 3-14편과 1권의 문맥에서 볼 때, 시편 9-10편의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¹⁰⁾ 그리고 이런 자만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시편의 교훈임을 제시할 것이다.

2. 시편 1권의 대단락들과 구조

시편 9-10편의 주위 문맥 안에 있는 단락의 경계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시편들이 속한 시편 1권(1-41편)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Scholars Press, 1985);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Canon & Culture* 3:2 (2009), 177.

8) 김성수, “시편 34-37편 문맥 속에서 시편 37편 읽기,” 『長神論壇』 50:5 (2018), 13.

9) 본 연구는 정경적 문맥에서 “아나브”의 의미를 연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면의 제약상 본문 배후에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아나브”의 의미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속제로 남아 있다.

10) 시편에서 “아나브”의 의미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시편의 핵심 주제가 율법에 있다는 McCann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J. Clinton McCann, Jr.,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25.

시편 9-10편이 속한 시편 1권이 어떤 대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편 9-10편을 둘러싼 대단락이 시편 1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지를 살펴보겠다.¹¹⁾

시편 1권의 처음을 여는 시편 1-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는 시각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물론 윌슨(Wilson)은 시편 1편은 지혜시이고 시편 2편은 제왕시로서 시편 1편은 시편 90-150편의 서론인 반면 시편 2편은 2-89편의 서론이라고 주장하여,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본다.¹²⁾ 하지만 어쨌든 시편 1-2편은 1권의 다른 시들과 구별되는 것은 분명하다.¹³⁾

그렇다면 서론으로서 해석적 길라잡이인 시편 1-2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주장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편 1편의 핵심어는 토라이고, 2편의 핵심은 시온이기에, 시편 1-2편의 핵심 내용은 종말에 시온에서 들어가는 지는 토라를 지키는 자리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다는 주장.¹⁴⁾ (2) 시편 1편은 의인이 초점이고 시편 2편은 왕이 초점을 이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의인은 왕 같은 존재임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¹⁵⁾ (3) 시편 1편의 핵심은 토라이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키워드

11) 여기서 “대단락”의 의미는 “모음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종 배열자가 인위적으로 단락을 배치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12) Gerald H. Wilson, “The Structure of the Psalter,”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ed.,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233.

13) 확실히 시편 1-2편은 어휘 면에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J. Clinton McCann, Jr., “Book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103.

14) Susan E.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ed., *Temple and Worship in Ancient Israel* (London, T&T Clark, 2005), 308-341; idem,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102.

15) Patrick D.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88; J. H.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2nd ed, The Biblical

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토라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주장.¹⁶⁾ 그리고 (4) 시편 1-2편은 종말의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아의 시각에서 시편을 읽도록 인도한다는 주장이 있다.¹⁷⁾

필자가 보기에 시편 1-2편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1:2처럼 복을 받는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이런 자가 열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시편 2편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과 연결시킨다(2:11). 시편에서 여호와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갖게 되는 모습을 가리킨다(5:7). 이런 점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교제의 관계를 지향하는 표현이다.

흥미롭게도 시편 1권 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40:8). 그리하여 시편 1-2편은 포로후기에 열국의 지배를 받는 유다 공동체에게 율법을 마음에 새길 것을 교훈하고, 이런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 관점은 시편의 주요 단락 초두에 빈번하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데서 지지를 얻는다.¹⁸⁾

이어서 3-14편이 대단락을 이룬다. 이 대단락은 앞뒤를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가 감싸고 있어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룬다.(3:7; 14:1) 시편 9-10편이 속해 있는 3-14편의 구조는 아직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단락은 3-7편, 8편, 그리고 9-14편으로 나뉜다. 3-14편에 대한 구조와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인이 고난당하는

Seminar (Sheffield: JSOT Press, 1986), 22.

16) McCan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45.

17) J. H.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SBT 32 (London: SCM, 1976).

1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김창대, “탄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 시편 2권과 3권의 배열구조에 대한 연구,” 『성경과신학』 66 (2013), 10-11.

상황에서(3-7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는 내용이다(8-14편).¹⁹⁾

그 다음으로 15-24편이 하나의 대단락을 이루고 있다.²⁰⁾ 시편 15-24편은 동심원 구조(ring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외곽의 틀을 이루는 15편과 24편은 누가 시온에 올라갈 것인가를 주제를 다루고, 그 가운데는 토라시인 시편 19편이 자리잡고 있다.²¹⁾ 동심원 구조에서 핵심 주제는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15-24편의 핵심 주제는 시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특별히 19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늘의 해가 즐거워하듯이, 율법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시편 1편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다(19:5, 10).²²⁾ 이로써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새기라는 교훈이 중심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다. 19:14이 마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음의 묵상이 열납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점을 잘 드러내 준다.²³⁾

15-24편에 이어서 25-37편도 하나의 대단락을 이룬다.²⁴⁾ 이 대단락은 앞과 뒤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주제가 나타나고(25:13; 37:11), “아나브”라는 단어가 초두와 말미에 언급되어(25:9; 37:11), 25-37편을 하나의 묶음으로 읽으라는 신호를 준다.²⁵⁾ 25-37편의 내용은 시편 1권의 다른 대단락들

19) Friedhelm Hartenstein, “Schaffe mir Recht, JHWH!” (Psalm 7,9): Zum theologischen und anthropologischen Profil der Teilkomposition Psalm 3-14,”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242-253.

20) William P. Brown,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260.

21)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86.

22) Brown, “Here Comes in the Sun,” 276.

23)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서울: IVP, 2015), 86.

24) 김성수, “시편 34-37편 문맥 속에서 시편 37편 읽기,” 26-28.

25) 한편 방정열은 시편 25-34편을 하나의 대단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정열, 『새로운 시편 연구: 실패한 인간-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왕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10.

과 달리 복과 관련된 말이 주요 주제를 이룬다(25:13; 27:13; 28:9; 20:11; 30:7; 31:20; 34:9, 13; 36:9; 37:22).²⁶⁾ 그리고 여기서 클라이막스는 25편, 29편, 34편, 그리고 37편이다.²⁷⁾ 그리하여 25-37편의 중심 메시지는 온유한 자(אָנָב)가 땅을 차지하고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7:11,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끝으로 시편 1권의 마지막 대단락은 38-41편이다. 기본적으로 38-41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고(38-39편), 새로운 다짐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40-41편).²⁸⁾ 흥미롭게도 이 대단락에는 시편 1-2편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이 포진되어 있다.²⁹⁾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구절은 40:8이다. 이 구절은 1:2과 비슷하여,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³⁰⁾ 그리고 41:1은 이런 자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율법을 행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1:1처럼 일깨워 준다.³¹⁾ 이런 관찰을 통해, 25-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가 38-41편에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발전되고 있고 (40:8, 17),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시편 1권의 대단락들과 그들 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26) Changdae Kim, “The Blessing of Inheriting the Earth in Psalm 37,” 102.

27) 25-37편의 수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111.

서론. 25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

A. 26-27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여기서 탄식은 26편)

B. 28-30편: 최고의 축복으로서 평강(여기서 탄식은 28편)

A'. 31-37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여기서 탄식은 각각 31편, 35편)

28) 방정열, 『새로운 시편 연구』, 225.

29) 특별히 방정열은 시편 1-2편의 어휘가 시편 41편에 반복되는 것을 도표로 잘 제시하고 있다. 방정열, 『새로운 시편 연구』, 167.

30)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86.

31) 41:1에서 “복이 있다”에 해당하는 אָנָב은 1:1의 אָנָב와 연결되어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Willem A. VanGemeren,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5,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1), 325.

- A. 서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음(1-2편)
- B.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나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3-14편)
 - X. 시온의 복을 위해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15-24편)
- B'. 율법을 지키는 “아나브”를 향한 하나님의 복(25-37편)
- A'. 결론: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음(38-41편)

3. 시편 3-14편의 구조와 내용

이제 시편 9-10편에 등장하는 “아나브”의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9-10편 이 속해 있는 3-14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확실히 이 작업은 시편 9-10편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 주는 토양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3-14편은 3-7편과 8편, 그리고 9-1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먼저 3-7편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심판을 기도하는 탄식자의 기도를 담고 있다. 이 기도자의 탄식은 2편에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시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³³⁾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불일치로 인해 3-7편의 기도자는 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3-7편에서 기도자는 곤경 중에서 여호와께 잠잠하지 말고 행동해 줄 것을 간구한다(3: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6, “나를 위해 깨소서”). 이 단락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정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건한 자라는 뜻의 “하시드”[חַשִּׁידִּים](4:3), 여호와를 경외하여 사랑하는 자(5:7),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5:11), 그리고 의와

32) 3-14편의 대략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70.

A. 대적자로 인한 탄식,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승리하라(3-7편)

B.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왕적 존재이다(8편)

A'. 인생을 감찰하시고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9-14편)

33)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토라로 토다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17.

성실을 행하는 의인 등으로 불린다(5:12; 7:8 참조).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3-7편은 구조 면에서, 동심원 구조를 이루며 그 중심 자리에 5편이 자리 잡고 있다.³⁴⁾ 따라서 3-7편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경적 문맥에서 3-7편은 열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으로 승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확실히 3-7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7; 5:11). 이 기쁨은 물질적인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과 차별화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의된다(4:7). 구체적으로 이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다. 그리하여 3-7편의 기도자는 이런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가진다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3-7편의 기도자는 1-2편에서 언급된, 복을 받는 자의 이상적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8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인간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부각시킨다. 이런 8편의 내용을 3-7편과 연결시켜 읽으면, 8편은 대적자로 인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향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권고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³⁵⁾

34) 3-7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72.

A. 3편--“여호와여 일어나소서”(3:7)

B. 4편--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겠다는 다짐(4:7)

X. 5편--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겠다고 다짐(5:7, 11)

B'. 6편--진노로 징계하지 말라는 호소(회개), 기쁨 대신에 눈물(6:1, 6)

A'. 7편--“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7:6, 11-12)

35) 김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神學과 宣敎』 9 (2005),

8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³⁶⁾ 이런 관점에서 8편은 3-7편의 드러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9-14편은 가난한 자라는 의미군에 속하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에 소위 “가난한 자들”의 시편들이라고 불린다.³⁷⁾ 9-14편은 3-7편에 나타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을 제공해 준다.³⁸⁾ 9-14편은 초두와 말미에 하나님의 부재 또는 무관심이라는 모티프가 등장하고(10:4; 14:1),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복해서 나타난다(10:6; 14:1).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인클루지오(inclusio)를 이룬다. 이 단락의 수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³⁹⁾

- A. 하나님이 온유한 자(아나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심(9편)
- B. 온유한 자의 탄식: 대적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함(10편)
- C.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심(11편)
- A'. 하나님이 대적자를 벌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심(12편)
- B'. 의인의 탄식: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말함(13편)
- C'.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심(14편)

이상의 구조로 볼 때, 9-14편은 패널 구조로서 그 중심 메시지가 C단락(11편)/C'단락(14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그러므로 이 단락의 핵심 메시

63.

36) James L.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06.

37) 방정열, 『새로운 시편 연구』, 187.

38) 이처럼 시편의 전체 구성은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조로 엮여졌다. McCann,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104.

39) 한편 9-14편은 동심원 구조로도 볼 수 있다.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79.

40) 패널구조의 핵심은 평행을 이루는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Bruce K. Waltke,

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인생을 감찰하시기에 대적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초점이 있다. 이런 중심 메시지를 통해, 이 단락은 3-7편에서 대적자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굽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 3-7편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8편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9-14편은 창조자인 하나님이 만물뿐만 아니라 인생을 감찰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희망에 있다고 응답하는 셈이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9-10편은 온유한 자인 “아나브”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3-7편의 기도자를 고난 속에서 낮아진 자인 “아나브”로 묘사한다(9:12, 18; 10:12, 17). 또한 9-10편은 “아나브”와 같은 의미군에 속한 단어들인 “가난한 자”(עָנִי/아니, 9:18; 10:2; 10:9)와 “궁핍한 자”(רָעִיב/에브룬, 9:18)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킨다. 그리고 11편은 질서의 붕괴 속에서 여호와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킨다.

이어 12-14편은 앞의 9-11편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12편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궁핍한 자(רָעִיב)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한다(12:5). 이어 13편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도자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14편은 인생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고(14: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עָנִי)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선포한다. 그리하여 악인은 두려움에 있게 되지만 가난한 자인 의인은 평화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끝난다(14:5-6).⁴¹⁾ 이제 시편에서 처음으로 “아나브”를 언급하는 시편 9-10편의 내용을 석의하여, “아나브”가 함의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119.

41)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148.

4. 시편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

시편 9-10편은 9-14편이라는 소단락 속에 위치한 시들이다. 또한 9-10편은 전체가 이합체시를 이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하나의 시로 읽으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⁴²⁾ 따라서 9-10편은 따로 분석하지 말고 그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옳다.⁴³⁾ 하지만 9편과 10편은 서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9편의 대적자는 이방나라들로 그려지지만, 10편의 대적자는 매우 개인적인 자로 제시되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여기서는 9편의 “아나브”와 10편의 “아나브”의 의미를 따로 살핀 후에,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를 종합하기로 하겠다.

앞서 말한 대로 9-10편에서 처음으로 낮고 가난한 자를 뜻하는 “아나브”가 언급된다. 그리고 9-10편에서 “아나브”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아니,” 또는 “에브온”이 등장한다. 이제 9편과 10편에서 “아나브”가 어떤 의미들을 함의하는지를 고찰해 보자.

4.1. 9편에서 “아나브”의 의미

9편은 표제상 다윗의 시이기에, 여기서 등장하는 대적자는 일차적으로 다윗 시대에 다윗을 해치는 이방나라들이다(9:20, “이방나라들이”).⁴⁵⁾ 하지

42) 필자가 보기에 시편에서 이합체시는 단락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락의 시작이나 중간, 또는 마지막과 같은 단락의 주요 길목에서 내용을 종합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편에서 이합체시는 다음과 같다. 9, 10, 5, 34, 37, 111, 112, 119, 145편.

43) Hans ~ Joachim Kraus, *Psalms 1 ~ 59, A Continental Commentary*, Hilton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91.

44) Samuel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138.

45) 시편의 표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지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 주제에 관해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Brevard S.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ournal of Semitic Studies* 16 (1971), 137-150.

만 시편은 최종적으로 포로후기에 배열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편의 최종 배열자는 이 대적자를 포로후기에 유다 공동체를 지배하는 열국으로 확대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⁴⁶⁾ 9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⁴⁷⁾

- A.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9:1)
 - B. 왕이신 주께서 나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임(9:2-3)
 - C. 과거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멸하셨음(9:4-6)
 - D. 여호와가 보좌에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9:7-8)
 - E. 여호와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심(9:9-10)
 - A'. 여호와는 가난한 자(אֲנָב)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심(9:11-12)
 - B'.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인한 고통을 보시옵소서(9:13-14)
 - C'. 과거에 이방 나라들과 악인이 웅덩이와 그물에 빠졌음(9:15-16)
 - D'. 악인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스올로 돌아가게 될 것(9:17)
 - E'. 여호와가 가난한 자(אֲנָב)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음(9:18)
- 결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9:19-20)

이상의 구조로 볼 때, 9편은 패널 구조로서 핵심은 E단락(9:9-10)/E'단락(9:18)에 있다. 9:18은 9:9-10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9:18의 “아나브”는 9:10이 말하는 “주를 의지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먼저 9:1-3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인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의 원인은 외관상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물러가게 했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기인한 일로 시인을 도와 주시며 교제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다.⁴⁸⁾ 나중에 원수로 인해 고통받는 자는 가난한 자인 “아나브”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아나브”는 단순히 고통으로 낮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자임을

46) McCann,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93.

47)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79.

48) Craigie, *Psalms 1-50*, 118.

깨달을 수 있다.

9:4-8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방나라를 의(צְדָקָה /체데크)와 공의(מִשְׁפָּט /미쉬파트)로 심판하셨음을 상기시키고(9:4-6), 그런 심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노래한다(9:7-8).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보편적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⁴⁹⁾ 이 구절에서 의와 공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9편에서 자신을 “아나브”와 동일시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

9:9-10에서 시인은 “압제를 당하는 자”(9:9)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또는 “주를 찾는 자”(9:10)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고난 속에서 주를 찾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확신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⁵⁰⁾ 9편에서 시인과 동일시되는 “아나브”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아나브”가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를 수행하고 자임을 일깨워 준다.⁵¹⁾

9편의 후반부인 9:11-20에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아나브”로 직접 언급하여,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먼저 9:11-14는 “아나브”를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로 소개하고(9:12), 하나님이 “아나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다. “아나브”로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한다(9:13). 이런 호소는 하나님이 “아나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과거의 경험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⁵²⁾ 여기서 9편에서 시인의 모습과 중첩되는 “아나브”의 특징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9:15-17은 과거에 하나님이 악인과 이방나라에 심판을 행하셨음을 기억

49) Kraus, *Psalms 1 ~ 59*, 194.

50) VanGemeren, *Psalms*, 119.

51) 시편에서 공의와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89편, 97편).

52) Kraus, *Psalms 1 ~ 59*, 195.

하는 시인이(9:15-16),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다(9:17). 이런 관철은 9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나브”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자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 준다.

미래에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 심판하시어 자신을 의지하는 “아나브”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9:18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 시인은 “아나브”를 “궁핍한 자”(אֲנָבִי)와 병치시키고 있다. “아나브”의 사전적 의미는 고난을 통해 낮아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고난을 통해 실제로 궁핍하고 가난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⁵³⁾ 이 구절에서 “아나브”는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받는 자로 부각되고 있다.

끝으로 9:19-20에서 자신을 “아나브”로 동일시한 시인은 여호와께 대적자인 이방나라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며 마무리한다. 이방나라는 다윗을 통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가진다. 이런 이미지를 이 구절에 대입하여 “아나브”의 특징을 살펴보면, 9편에 등장하는 “아나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자들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방나라에 분노를 쏟아 그들이 연약한 인생(אֲנָשִׁים)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9:20). 이 호소는 거꾸로 이방나라들의 특성이 자기 교만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방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아나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인 줄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나브”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⁵⁴⁾

53) אָנָב의 사전적 의미는 “구부러지다,” “굽혀지다, 또는 ”굴욕을 당하다“이다. Koehler &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 Brill, 2001), 855.

54)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165.

4.2. 10편에서 “아나브”의 의미

10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대적자로 인해 탄식하는 시이다. 9편과 달리 10편은 대적자들의 말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10:4, 6, 11), 대적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다.⁵⁵⁾ 10편에서 “아나브”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은 숨으셨고, 자신들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교만을 뽐내는 자들로 그려진다. 10편의 수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⁵⁶⁾

- A.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10:1)
- B. 악인은 여호와가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함(10:2-4)
- C. 악인이 가난한 자(아니) 꺾박: 하나님이 인간을 잊으셨다고 말함(10:5-11)
- A'. 여호와여 가난한 자(아나브)를 잊지 마소서(10:12)
- B'. 여호와여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악인을 심판하소서(10:13-15)
- C. 영원한 왕인 여호와가 가난한 자(아나브)를 위해 심판하심(10:16-18)

이상의 구조로 볼 때, 10편의 초점은 C단락/C'단락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 10편은 대적자인 악인이 가난한 자를 꺾박하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영원한 왕으로서 가난한 자를 위해 심판하실 것이기에(10:16), 악인의 생각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10:2, “그들이 자기가 베풀 피에 빠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아나브”는 9:18처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고 보호를 얻게 될 것을

55) Craigie, *Psalms 1-50*, 126.

56) 한편 VanGemenen은 10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VanGemenen, *Psalms*, 125.

- A. 절문(1절)
- B. 악인의 통치(2-11절)
- C. 구원을 위한 기도(12-15절)
- B'. 하나님의 통치(16절)
- A'. 해결(17-18절)

선언한다(10:16-18).

먼저 10편의 전반부(10:1-11)는 대적자인 악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⁵⁷⁾ 이 전반부에서 “아나브”가 “아니”라는 명칭으로 대체되고 있다(10:2). 이런 대체는 대적자로 인해 곤경을 당하는 “아나브”가 가난하여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0편의 시인은 대적자로 인해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불행하다”라는 뜻의 “헬레카”(הֵלֵכָה)라는 단어를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10:8, 10, 14).

전반부(10:1-11)에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있다고 말한다(10:4). 악인은 교만하여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태도를 보인다(10:6). 이처럼 교만한 악인과 관련해서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인 “아니”로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10:2). 악인의 특징은 교만과 욕심으로 특징짓는다(10:3).⁵⁸⁾ 이런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말을 쏟아낸다. 구체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무지하며 영원히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한다(10:11). 이런 진술은 거꾸로 의인의 모델로 제시되는 “아나브”는 교만과 욕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좇고자 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심어준다.

10편의 후반부(10:12-18)는 시인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무례한 악인을 벌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먼저 10:12-15에서 시인은 자신을 직접 “아나브”라고 말하고 “아나브”를 잊지 말라고 애원한다(10:12). 그 이유는 악인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10:13). 이어 여호와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시인은(10:14), 여호와가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한다

57) Futato는 10:1-11이 9-10편의 중심을 이룬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Mark D. Futato, *The Book of Psalms*, Tyndale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7 (Carol Stream,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 58.

58) Arthur Weiser, *The Psalms*, Herbert Hartwell, tran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2), 153.

다(10:15).⁵⁹⁾ 이 대목에서 “아나브”의 특징은 9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9:10).

끝으로 10:16-18은 여호와를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가 “아나브”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종결된다.⁶⁰⁾ 10:17에서 시인은 다시 자신을 “아나브”로 명명하고 여호와가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더 나아가 10:18에서 시인은 자신을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로 묘사함으로써, “아나브”가 대적자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9:9).

10:18b에서 시인은 악인을 “세상에 속하는 자”로 표현함으로써, 거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아나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임을 드러낸다. 여기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0편의 초두에서 시인은 악인의 특징으로 탐욕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임을 지적했다(10:3). 악인은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보다는 재물을 좇는다는 설명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아나브”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잠언은 재물의 반대가 의(יִשְׁרָאֵל)임을 천명한다(잠 10:2; 11:4). 이점을 고려하여 시편 10:18을 해석하면, 결국 악인과 상반된 의인의 모습인 “아나브”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의(יָדָבָר)와 공의(צְדָקָה)로 통치하는 분이심을 고백했다(9:7-5). 따라서 9-10편에 나타나는 “아나브”는 세상의 재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더 나아가 10:18b에서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이 “세상에 속한 자”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세상에 속하는 ‘에노쉬’(עֲנוּשִׁי)”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사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이미지는

59) Kraus, *Psalms 1 ~ 59*, 199.

60) Craigie, *Psalms 1-50*, 126.

왕이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룬다.⁶¹⁾ 그리하여 이 문구는 거꾸로 “아나브”가 인생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는 사실을 전달해 준다.

4.3.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에 대한 요약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9-10편에 등장하는 “아나브”는 단순히 고난 앞에서 굴욕을 당하여 낮아진 자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더 깊은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는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자라는 데에 있다(9:1-2).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에 민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이미지를 갖는다(9:7-8). 덧붙여 환난 앞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제시된다(9:9-10).

또한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을 바라는 자이다(9:4-6, 15-17). 이런 모습 배후에는 자신이 연약한 인생(אִנּוּי)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9:19-20).⁶²⁾ 이런 인생관은 시편 8편이 이미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8:4, “사람(אִנּוּי)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어 10편에서 “아나브”는 대적자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10:14),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그려진다. 더욱이 “아나브”는 악인과 달리 세상의 욕심에서 멀어진 자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이미 9편에서 어느 정도 제시된 것이지만 10편은 이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9-10편에서 “아나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인생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세상의 재물이

61) VanGemeren, *Psalms*, 130.

62) 9-10편은 모두 비천한 인생(에노쉬)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81.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자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9-10편은 다음과 같은 통합적 구조를 이룬다.⁶³⁾

- A. 여호와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심(9:1-10)
- B. 영원히 여호와와 가난한 자(아나브)를 실망시키지 않으심(9:11-18)
- C. 대적자를 심판해 달리는 간구(9:19-20)
- A'. 악인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아니)를 잊으셨다고 말함(10:1-11)
- B'.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가 가난한 자(아나브)를 위해 심판하심(10:12-18)

이와 같은 통합적 구조로 볼 때, 9-10편의 초점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나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 준다. 이제 9-10편에서 말하는 “아나브”의 특징이 시편 1권의 문맥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5. 시편 1권의 문맥에서 시편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

5.1. 시편 3-14편의 문맥에서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

9-10편이 속해 있는 3-14편의 구조와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63) 시편에서는 종종 여러 시들이 함께 모여 통일된 구조를 가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46-48편이 그러하다.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은 신학,” 「구약논단」 15:2 (2009), 75-76. 또 다른 예는 22-24편이다. Nancy L. Declaissé-Walford, “An Intertextual Reading of Psalms 22, 23, and 24,” Peter W. Flint and Patrick D. Miller, 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Boston: Brill, 2005), 147.

3-14편의 문맥에서 “아나브”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앞서 말한 대로, 3-14편은 3-7편, 8편, 그리고 9-14편으로 나뉜다. 3-7편은 동심원 구조로서 그 중심에 5편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성도(צַדִּיק, 4:3)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기서 오는 교제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음을 교훈한다(5:7, 11).

이어 8편은 3-7편에 고난으로 신음하는 기도자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 주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고난에 신음하는 기도자에게 인생(חַיִּים)의 연약함을 돋보이게 하여,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영광과 존귀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⁶⁴⁾ 이런 교훈은 고난 앞에서 궁핍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기시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유도해 준다.

이어 9-14편은 본격적으로 신음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준다. 9-14편을 여는 9-10편은 “아나브”를 언급하는데, 이 “아나브”의 의미는 3-14편의 문맥에서 바리볼 때, 3-7편의 기도자와 연속성을 갖는다. 9-10편의 “아나브”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적 욕심을 떨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자로 묘사된다. 이런 “아나브”의 이미지를 3-7편의 기도자와 연결시키면, “아나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

9-14편은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주제가 핵심을 이룬다(11:4; 14:2). 이런 의미에서 10편의 시인은 자신을 “아나브”와 동일시하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다(10:13). 이런 연결성을 고려할 때, 9-14편의 문맥에서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64) 확실히 시편 8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시이다.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10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9-14편의 후반부를 이루는 12-14편에서 “아나브”라는 명칭 대신 “아니” 또는 “에브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12:5; 14:6). 여기서 “아니”와 “에브온”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받는 존재로 비쳐진다. “너희가 가난한 자[아니]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14:6). 따라서 9-14편의 문맥에서 “아나브”는 주님을 의지하여 결과적으로 구원을 약속받는 자로 확대되고 있다.

5.2. 시편 1권의 다른 문맥에서 9-10편의 “아나브”의 의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편 1권에서 3-14편 다음으로 나오는 대단락들은 15-24편, 25-37편, 그리고 38-41편이다. 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15-24편에서는 “아나브”가 한 번(22:26), “아니”는 두 번 사용된다(18:27; 22:24). 22편에서 “아나브”는 “아니”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 백성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15-24편의 문맥에서 “아나브”는 3-14편에서 제시된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를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24편의 핵심은 가운데 위치한 19편으로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그것을 묵상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다(19:5, 10, 14). 그런 자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교훈이다(15편, 24편). 앞서 3-14편에서 “아나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복을 약속받는 자였다. 이런 문맥 속에서 15-24편은 그 구원의 복이 궁극적으로 시온의 복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자임을 교훈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15-24편은 3-14편의 “아나브”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는 힌트를 준다. 이렇게 되면, “아나브”의 이미지는 시편의

서론인 1-2편에서 복을 받는 자의 전형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25-37편에서 “아나브”가 직접 언급되고(25:9; 34:2; 37:11), 아울러 같은 의미군에 속한 “아니”(25:16; 24:6; 35:10; 37:14)와 “에브론”(35:10; 37:14)이 사용된다. 내용상 25-37편은 의인의 복으로서 땅 상속과 평강의 복을 강조하고(25:13; 27:13; 29:11; 34:16; 37:11, 29, 34), 그런 복을 누리는 자를 “아나브”로 명명한다. 여기서 땅의 상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 축복도 포함한다.⁶⁵⁾ 25-37편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 “아나브”는 여호와와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깊게 체험하고 여호와와의 경외와 함께 여호와와의 언약과 도를 따르는 자로 제시된다(25:6, 9-10, 12; 34:9; 37:26, 34).⁶⁶⁾

마지막 대단락인 38-41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38-39편). 그리고 40편은 고난의 과정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새길 것을 다짐한다(40:8). 그리고 시인은 이런 자신을 “아니”와 “에브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40:17). 이로써 38-41편의 문맥은 9-10편의 “아나브”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임을 드러내 준다. 끝으로 41편은 이런 자가 가난한 자(גַּבְרִי)를 돌보라는 율법을 실천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41:1).

6.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시편 9-10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나브”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고난을 당하여 낮아진 자의 의미 이상으로 많은 신학적 함의들

65)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797.

66) Dumbrell, “אֲנֹכִי,” 460-461.

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나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인데, 이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기계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다. 시편 1권의 문맥 안에서 “아나브”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나브”의 정체성은 더 깊은 영적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

일차적으로 9-10편의 “아나브”는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9:4-8, 20)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제시된다(9:10). 이 “아나브”의 의미는 9-10편이 속해 있는 3-14의 문맥 안에서 더욱 확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미지와 연결된다(3-7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자 하는 자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11-14편은 “아나브”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임을 드러낸다.

시편 1권이라는 전체 문맥에서, 9-10편의 “아나브”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발전하고(15-24편), 25-37편에서는 땅의 복을 받는 자로 더욱 구체화된다. 또한 38-41편의 문맥에서 “아나브”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절실히 자각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선명하게 제시된다. 그리하여 “아나브”가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자로 말한 의인임을 깨닫게 해 준다.

결론적으로 시편 1권에서 “아나브”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덧없음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여, 궁극적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⁶⁷⁾ 이상의 “아나브”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시편 연구에서 문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시편의 신학적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시편의 문맥 읽기를

67) 이와 같은 “아나브”의 영적 의미는 제왕시에 왕이 “가난한 자”로 제시된다는 것에서 더욱 지지를 얻는다. 김정우,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81.

추동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하다. 끝으로 “아나브”의 의미가 시편을 넘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향후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시편, 아나브, 구성적 방법, 고난, 문맥

<Keywords>

Psalm, ‘Anav, Compositional method, Suffering, Literary context

* 접수일 2020년 2월 25일, 수정일 2020년 3월 3일, 게재 확정일 2020년 4월 1일

참고문헌

- 김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神學과 宣敎』 9 (2005), 63-83.
- _____, “시편 34-37편 문맥 속에서 시편 37편 읽기,” 『長神論壇』 50-5 (2018), 11-37.
- 김정우,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聖經과 神學』 8 (1990), 62-89.
- _____,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15권 2호 (2009), 63-82.
- _____, “탄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 시편 2권과 3권의 배열구조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66 (2013), 1-33.
- _____, 『한권으로 꿰뚫는 시편: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서울: IVP, 2015.
-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Canon&Culture* 3:2 (2009), 177-206.
- 방정열, 『새로운 시편 연구: 실패한 인간-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왕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토라로 토다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Brown, William P.,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 Childs, Brevard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ournal of Semitic Studies* 16 (1971), 137-150.
- Cotterell, Peter, “Linguistics, Meaning, Semantics, and Discourse Analysis,” Willem A. VanGemeren, ed.,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9.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 Declaissé-Walford, Nancy L., “An Intertextual Reading of Psalms 22, 23, and 24,” Peter W. Flint and Patrick D. Miller, 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Boston: Brill, 2005.
- Dumbrell, W. J., “אָנָב,” Willem A. VanGem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7.
- Eaton, J. H., *Kingship and the Psalms*, 2nd ed, The Biblical Seminar, Sheffield: JSOT Press, 1986.
- Futato, Mark D., *The Book of Psalms*, Tyndale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7, Carol Stream,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
- Gillingham, Susan E.,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 _____,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ed., *Temple and Worship in Ancient Israel*, London, T&T Clark, 2005.
- Hartenstein, Friedhelm, “‘Schaffe mir Recht, JHWH!’ (Psalm 7,9): Zum theologischen und anthropologischen Profil der Teilkomposition Psalm 3-14,”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 Kim, Changdae, “The Blessing of Inheriting the Earth in Psalm 37: Its Theolog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1 (2007), 95-110.
- Koehler &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 Brill, 2001),
- Kraus, Hans-Joachim, *Psalms 1 ~ 59*, A Continental Commentary, Hilton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_____, *Theology of the Psalms*, A Continental Commentary, Keith Crim,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2.

- McCann, J. Clinton, Jr.,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_____, “Book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 Miller, Patrick D.,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 Terrein, Samuel,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 VanGemenen, Willem A.,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5,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1.
- Waltke, Bruce K.,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 Weiser, Arthur, *The Psalms*, Herbert Hartwell, tran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2.
- Wilson, Gerald H.,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Structure of the Psalter,”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ed.,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초록>

시편 1권의 문맥에서 본 시편 9-10편의 “아나브”(אָנָב)의 의미

김창대
(안양대학교)

본 연구는 시편 9-10편에서 등장하는 “아나브”(אָנָב)의 의미가 시편 1권의 문맥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편의 시들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구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의 경계를 넘어 주위 시들의 문맥에서 אָנָב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9-10편의 문맥, 3-14편의 문맥, 더 나아가 시편 1권의 전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차적으로 9-10편에서 “아나브”는 세상의 욕심을 떨리하고 인생의 연합함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제시된다.

다음으로 9-10편이 속해 있는 3-14의 문맥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3-7편).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자 하는 자임을 일깨워 준다(4: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보호와 구원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11-14편)

다음으로 시편 1권의 문맥에서 이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관찰하면, 그 의미의 지평이 더욱 확장된다. 앞서 3-14편은 “아나브”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라는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15-24편은 그런 복을 시온의 복으로 병치시키고,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나브”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는 힌트를 준다. 이어 25-37편은 “아나브”가 언약과 도를 따라 땅 상속과 평강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한다(37:11, “온유한 지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끝으로 38-41 편은 “아나브”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38:4; 39:5-8),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임을 보여 준다(40:8-9). 그리하여 “아나브”가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자로 제시한 의인임을 깨닫게 해 준다(41:1). 결국 “아나브”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덧없음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여, 궁극적으로 참된 복을 받는 성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nav”(אָנַב) of Psalms 9-10 in the Literary Context of Book I of the Psalter

Changdae Kim
(Anyang University)

This work has its purpose in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word אָנַב which occurs first in Psalms 9-10 throughout the entire Psalter. To this end, this study has used the compositional method in such a way of attending to the literary context surrounding Psalms 9-10 where the word is first mentioned. More specifically, in an effort to find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אָנַב in the Psalms, ou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context of Psalms 9-10, then to the context of Psalms 3-14, and finally to the broader context of Book I of the Psalter.

In the process, the argument has been advanced that the word אָנַב in Psalms 9-10 has among other connotations the sense of pointing to a person who seeks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Go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at the same time trusting in God.

Within its immediate context of Psalms 3-14,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word אָנַב are further expanded in such a way that it includes the concept of a person who loves God in response to experiencing God's love (Psalms 3-7). This leads to the notion that אָנַב implies also a person who overcomes any adversities with a joy coming from relationships with God. Furthermore, the contextual reading of Psalms 11-14 hints that אָנַב conveys the sense of a person who is blessed with the promise of salvation by God.

Further observations of the implications of עָנִי within Book I of the Psalter, widen the horizons of our understanding of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word. In attending to the context of Psalms 15-24, the sense of עָנִי is revealed to embrace the concept of enjoying the law and meditating on it. From the contextual reading of the word in Psalms 25-37, it is evident that the identity of עָנִי is deeply related to a blessed person who is given the promises of God, that is to say, inheriting the earth as well as peace. Finally, when dealing with the implications of עָנִי in the context of Psalms 38-41, it is found that a picture of עָנִי is taken as a person who puts the law into his heart(40:8-9).